

# “악성민원 대응 체계 근본적 전환 절실”

### 전교도 전북, 미산초 사안 등 관련 도교육청 방침 비판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교육활동 보호 동의서 전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미산초 사안과 관련해 18일간 이어온 농성을 마무리하며 도교육청의 악성민원 대응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대응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기존 체계를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동안 장학관·장학사배치 등 교육청의 선제적 개입과 악성민원에 대한 직접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먼저 특이 민원을 대응하고 필요 시 요청하면 지원하겠다”

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 지원 역시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선제적 공동 대응이 아니라 기존의 요청 기반 지원 체계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학교의 요청에 즉각적인 개입과 실질적인 조치가 현장에서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며, 실행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장학관·장학사 배치

를 통한 선제적 개입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 요구는 특이민원을 학교의 일이 아닌 교육청의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사례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를 고립시키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은 악성민원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비유하며 “구조를 바꾸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은 악성민원의 폐해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동욱 교사는 새로운 미산초 교원과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정인을 탓하기보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담임교사였던 송옥진 교사도 발언에 나서 “교육청이 충성을 이유로 교사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별의 수준의 악성 민원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사 책임을 언급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악성민원 대응 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명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교육활동 보호 정책 동의서를 전달하고 △담임 공석 발생 시 행정적 보호 조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직접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후보 측의 답변 전문은 전교조 전북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지난달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대응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기존 체계를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 국립군산대, 5년간 75여억원 확보 기계·컴공 등 총 9개 학과 참여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는 지난 27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인공지능(AI)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1년 이내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첨단분야 실무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는 사업이다. 선정 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 의견을 통해 “국립군산대는 참여 학과의 교원 및 인프라가 우수하며, 기계와 컴공 등 9개 전공이 협력하여 첨단 설계·제조 산업의 AI 전환을 꾀하는 운영 체계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AX(AI 전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사업에는 기계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등 총 9개 학과 48명의 전임교원이 참여하며, 타타대우모빌리티, KGMC, 한국건설기계연구원, KT, AWS, Altair, ANSYS 등 50여 개의 선도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형(IC-PBL)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대학 간 교류 노력과 지역 전략 산업(모빌리티, 조선해양 등)과의 연계성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립군산대는 이번 선정으로 향후 5년간 국비 약 71억2,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지원하고 대학 매칭 자금을 더해 총 75억원 규모의 대규모 AI 융합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또한 단순히 AI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Design)-해석(Simulation)-제조(Manufacturing)로 이어지는 제조 전주기에 AI 기술

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AX(AI 전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사업에는 기계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등 총 9개 학과 48명의 전임교원이 참여하며, 타타대우모빌리티, KGMC, 한국건설기계연구원, KT, AWS, Altair, ANSYS 등 50여 개의 선도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형(IC-PBL)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수준별로 △(AI 기초 및 클라우드 실습) △중급(생성형 설계 및 제조 데이터 모델링) △고급(첨단 설계/해석, 제조 및 자동화 시스템 AX 마스터) 과정으로 구성되며, 비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학제를 도입한다. 학생들은 이수 단계에 따라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를 수여받으며, 중급 이상 이수 시 최대 150만원의 장학금 혜택과 참여기업 우선 채용 가산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 전북교육청, 3일부터 2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 기존에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50만2,000원에서 88만 원 상당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포함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및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영진 학교안전과장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상 가정에서는 집중 신청 기간을 활용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 유정현 우석대 행정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유정현 행정부장이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유정현 행정부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내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및 무료진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에도 힘써왔다. 또한 병원 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공공의료의 가치를 높이고, 한의약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아카데미홀에서 약 2,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 대학 새내기들의 새 도약 ‘START’

### 국립군산대, 2026학년도 입학식·신입생 OT 개최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아카데미홀에서 약 2,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입학식의 품격 있는 격조와 대학 생활 안착을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결합해, 신입생들이 캠퍼스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으로 기획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학사과정 1,899명, 석사과정 146명, 박사과정 50명 등 총 2,095명이다. 1부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 장재호(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선서와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성장을 통해 자신만의 적성을 찾고 진정 배움의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진행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2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전공 이해도를 높이는 전공박람회 △수강신청 지도 △장학제도 및 대학생활 안내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등 실질적인 대학 생활 가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올해는 신입생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친화적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작된 벨캠프트(진공 에코백 및 텀러)를 전원 증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국립군산대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대학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평생의 멘토를 만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1학년 시기부터 다양한 도전과

또한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소개 시간을 통해 신입생들이 학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평균 8.5대 1

### 직종별로는 교무실무사가 58.3대 1로 가장 높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237명 모집에 2,008명이 지원해 평균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 밖에 △조리실무사 162명 모집에 353명 지원(2.2대 1) △특수교육지도사 30명 모집에 385명 지원(12.8대 1) △늘봄실무사 21명 모집에 285명 지원(12.6대 1) △교육복지조장자 1명 모집에 11명 지원(11.0대 1) △교육복지사 7명 모집에 110명 지원(15.7대 1) △임

상심리사 1명 모집에 7명 지원(7.0대 1) 등으로 집계됐다. 1차 필기시험은 3월 28일 실시되며, 시험 시간과 장소는 3월 18일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1차 합격자는 4월 24일 발표된다. 이후 5월 2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5월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합격자는 순차적으로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2026학년도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 급식 관계자 등 150여명 대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안내 학교급식법·식품위생법 근거 위생관리 준수사항 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사립유치원 급식 관계자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6학년도 급식 기본방향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방안 △식재료 구매 및 검수 관리 기준 △식중독 예방 및 위기 대응 체계 확립 △급식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주요 사항이 안내됐다. 특히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치원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을 강조했다.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와 위생복·위생모·

위생장갑 착용 기준 준수, 식재료 검수 시 소비기한 및 보관온도 확인, 갈·도마 구분 사용을 통한 교차오염 방지, 조리실 및 급식기구의 정기적 소독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제시됐다. 전북교육청은 설명회에 이어 개학 대비 현장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의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유치원 급식은 성장기 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고교 2학년생 대상 ‘글로벌 수학탐험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2026 글로벌 수학탐험대’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현장 체험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공계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차 8일 일정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 고등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참가 희망 학생의 신청을 받

는다.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는 각 학교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총 18명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전체 모집 인원의 30%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연수에 앞서 사전교육을 실시해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고, 귀국 후에는 결과 발표회를 열어 활동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